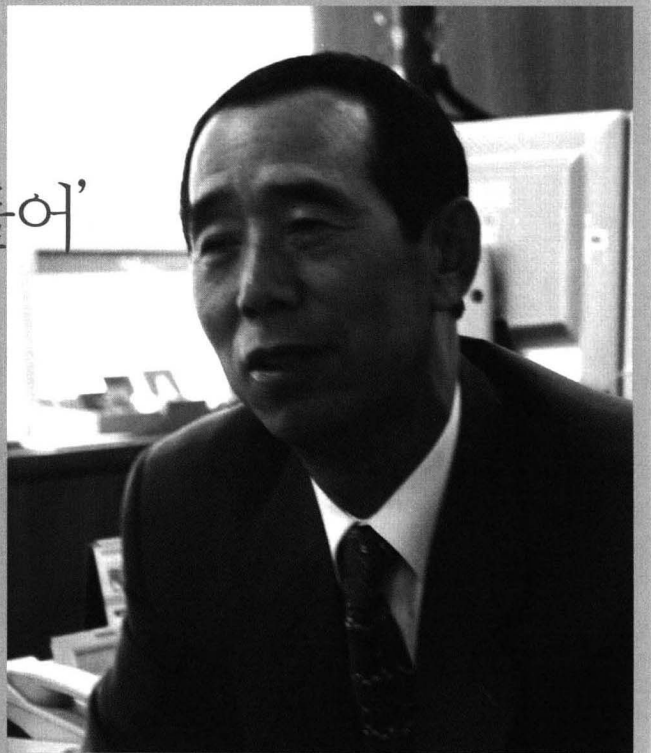


대통령상 받은 김석규 (주)한국몬테소리 회장

‘교재 · 교구마다 아이들 위한 기도 깃들여’

몬테소리 이념으로 이 땅의
아이들에게 행복 선사
정성들인 교재로 아이들
기뻐할 때 희열 느껴



‘피추천인 김석규는 몬테소리 교육을 국내에 소개, 전파하는 데 공헌했고, 산학협동을 통해 유아교육 이론 발달에 기여했으며...’

(주)한국몬테소리 김석규 회장(59)에 대한 대통령상 후보 추천서의 한 구절이다. 한 중견기업인의 사회적·문화적 공적이 이보다 더 충실할 순 없다. 그러나 중견기업인, 아니 유아 교재·교구 출판인으로서 그의 진정한 ‘모티프’는 그런 피상적 수사에 담겨있지 않다.

“정성 들여 만든 제품을 고객들이 받아들이고 흡족해 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큰 보람이죠. 특히 아이들이 기뻐하며 해맑게 웃을 때 정말 ‘기업하는 맛’이 납니다”

어떻게 30년째 한 우물을 팔 수 있었냐는 물음에는 정작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며 웃어보인다. 대답으로선 좀 부족하다 싶었던지 “그저 열심히 살아왔다”고 한마디 덧붙인다. 치열하게 살며, 성취를 일군 기업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허나 그런 겸양속에 김 회장만의 천부적 심성과 철학이 감춰져 있다. 교육학자 ‘마리아 몬테소리’의 숭고한 이념에 깊이 공감하며, 이를 우리 땅에서 실현해보고자 하는 올곧은 확신이 그것이다.

“몬테소리 묘비명에 그렇게 써 있죠. ‘세계와 인류 평화를 재창조하기 위해 모든 것이 나와 일치할 수 있도록 나는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입니다. 깊이 가슴을 울리는 명언입니다”

75년 도서관매 중앙상사를 설립, 자신만의 출판 노하우를 실현해오던 그는 마침내 88년 (주)한국몬테소리를 창립, 그런 이념을 현실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창의력과 언어능력·정서발달 등 다방면의 유아 교육을 위한 교재와 교구를 통해 그 뜻을 펼쳐 보였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심정’으로 끊임없는

제품 혁신과 고객 분석으로 고객 감동을 선사하곤 했다.

이 모든 노력은 결코 이윤동기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다.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더라도 몬테소리 교육철학이 스며들게 하고, ‘내 아이’를 기른다는 생각으로 애정을 기울이며 차별화를 기했다”는 김 회장의 얘기다. 몬테소리 정신이 밴 교구·교재를 전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든 지도교사들에게도 그 ‘정신’을 주입시켰다. 행여 잘못된 재료로 해라도 끼칠까 싶어, 국내 최초로 자체 공장에서 고품질 목재 교구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목재교구 메이저인 스위스 네프사와 기술 제휴를 하는 등 선진기술을 받아들이는 데도 주저하지 않았다.

“분명 상업적 동기의 제품일지언정, ‘윤리’라는 요소를 그 속에 투입했다”는 김 회장은 “품질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객 신뢰 등은 그 반경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됐다”고 전했다. 그로부터 20년이 채 안된 지금, ‘몬테소리’는 국내 유아 교재·교구의 대명사가 됐다. 최근엔 애초 우리보다 앞섰던 일본이나 중화권에 역수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김 회장은 불현듯 “왜 이제야 대통령상을 주는가”고 우스갯소리를 던지기도 했다. 물론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몬테소리’ 사업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행간에 깔린 얘기다. 그렇다고 남이 알아주길 바라는 공치사 따윈 천성적으로 싫어하는 성격이다. 다만 어린이를 위한, 선한 동기의 사업에 대한 확신은 남다르다. 그래서 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는가?”를 자신과 타인에게 묻고 답을 구한다. **▶▶▶**

글 박경만기자 | 사진 홍이현기자